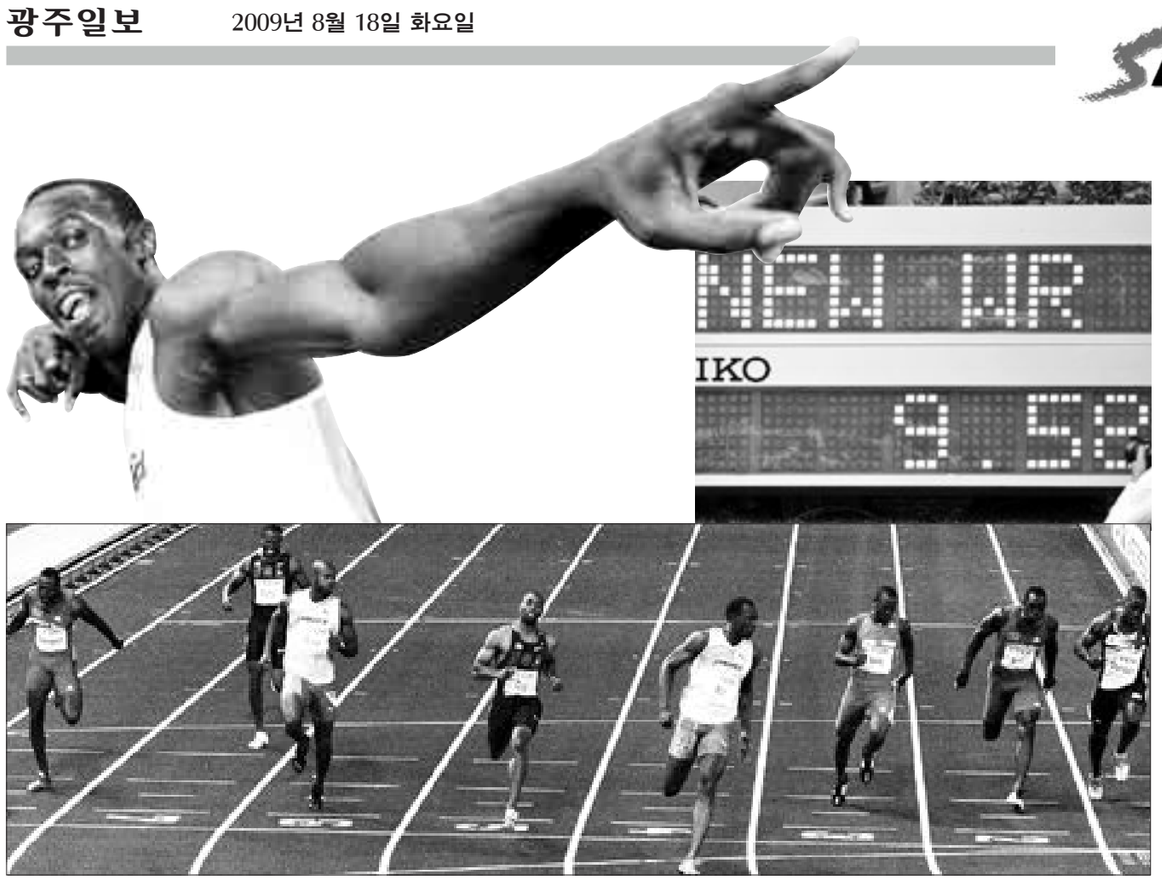


17일 오전(한국시간) 독일 베를린 올림피아 슈타디온에서 열린 2009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0m 결승에서 우사인 볼트(자마이카·오른쪽4번째)가 세계신기록(9초58)을 세우며 골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9초58…볼트 '인간 한계' 뚫다

베를린 세계육상 100m 라이벌 게이·파월 제치고 세계신 우승

1년만에 자신의 기록 0.11초 단축…세단뛰기 김덕현 예선탈락

'번개 스프린터' 우사인 볼트(23·자메이카)가 제12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0m에서 9초58이라는 세계신기록으로 우승했다.

볼트는 17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독일 베를린 올림피아 슈타디온에서 열린 '인간 탄환'을 가리는 세기의 대결에서 강력한 라이벌 타이슨 게이(27·미국)와 아사파 파월(27·자메이카)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끊었다.

작년 베이징올림픽에서 9초69라는 세계신기록으로 정상을 밟았던 볼트는 불과 1년 만에 0.11초를 줄이면서 독주시대를 화려하게 열어젖혔다. 공교롭게도 올림픽 금메달을 딴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인간의 한계로 여겨지던 9초6대와 9초5대를 잇달아 돌파하면서 볼트는 "9초54까지 뛸 수 있다"는 목표가 결코 허언이 아님을 유감없이 입증했다. 볼트는 특히 이번 대회 첫 세계신기록을 세우면서 결정적인 순간 힘을 발휘하는 슈퍼스타다운 면모도 과시했다. 볼트와 게이, 파월은 각각 준결승에서 9초89, 9초93, 9초95를 찍고 전체 1~3위로 결승에 올랐고 볼트가 가장 좋은 4번 레인, 게이와 파월이 각각 5번과 6번 레인에 나란히 포진했다.

지난해 볼트가 급성장한 뒤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단거리 세 영웅 간 역사적인 대결이 성사됐다.

셋이 스타트 블럭에 앉자 경기장에는 장엄한 음악이 흘렀고 모두가 숨죽여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마침내 스타트 총성이 울리자 곳곳에서 함성과 함께 터진 카메라 불빛으로 일대 장관이 연출됐다.

레이스 시작 전 양팔을 뻗는 독특한 세리머니로 승리를 확신했던 볼트는 결승선 40m 전부터 여유를 부렸던 지난해 올림픽과 달리 끝까지 진중한 레이스를 펼쳤고 마침내 세계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낸 뒤 출발선 뒤쪽에 자리 잡은 자메이카 응원단에 다가가 세계정상에 오른 기쁨을 함께 나눴다.

한편 남자 도약 종목의 희망 김덕현(24·광주광역시청)이 남자 세단뛰기 예선에서 탈락했다.

김덕현은 17일 열린 남자 세단뛰기 예선에서 A조에 출전, 세 차례 시기에서 16m58을 넘는데 그쳐 A,B조 합계 전체 24위로 12명이 오르는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2년 전 오사카 세계대회 이 종목에서 결선에 올라 한국 선수로는 8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 결선행을 재현했던 김덕현은 그러나 이날 개인 최고인 17m10에 훨씬 못 미치는 부진한 성적을 남겼다.

김덕현은 20일 열리는 멀리뛰기 예선에서 두 번째로 결선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나 잡아봐라~" KIA 선두 굳힌다

이번주 홈서 히어로즈전 이어 인천서 SK 사냥

투·타 최고조…윤석민 앞세워 1위 수성 총력전

KIA 타이거즈가 이번주 1위 수성을 위한 시험무대에 오른다.

KIA는 올스타전 이후 11연승을 달리는 등 하반기에만 14승3패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거침없는 질주에도 불구하고 0.587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KIA와 2위 두산(승률 0.563)과의 승차는 2.5게임 차 밖에 나지 않는다. 아직 1위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주 KIA는 히어로즈와 SK와의 대결을 갖는다. 홈에서 승부를 벌이게 되는 히어로즈는 6위로 힘겨운 4강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상대전적에서는 KIA에 앞서 있다.

KIA는 올 시즌 히어로즈와의 대결에서 6승7패로 열세다. 올 시즌 KIA의 팀 평균자책점이 3.89로 전체 2위지만 히어로즈 전 평균자책점은 5.26까지 치솟는다. 히어로즈 타자들 앞에 서면 작아지는 마운드 탓에 두산(4승8패)에 이어 유일하게 상대전적에서 뒤지고 있다.

타선의 힘대결이 이번주 히어로즈전 승패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삼성과의 주말 3연전에서 KIA는 6개의 홈런포를 쏘아올리는 등 28개의 안타로 23점을 뽑아냈다. 히어로즈도 주말 두산과의 3연전에서 5개의 홈런을 비롯해 36개의 안타로 19점을 만드는 등 폭발적인 타격을 선보였다.

지난 7월19일 한화전 승리 이후 4연승 행진중인 윤석민이 히어로즈전 열세 뒤집기에 앞장선다. 상대는 좌완 마일영. 올 시즌 마일영은 KIA전에서 3차례 나와 8.31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며 2패를 기록하는 등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윤석민이 앞서 있다.

하지만 히어로즈 타선의 뒷심이 만만찮다. 히어로즈는 16일 11회까지 가는 접전끝에 정수성의 끝내기 안타로 두산을 제압하며 가을잔치를 향한 불씨를 살려두었다. 4강을 향한 히어로즈의 거센 반격이 KIA의 1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히어로즈와의 홈경기를 치른 뒤 KIA는 SK와의 경기를 위해 인천으로 주말 원정을 떠난다.

지난해 SK에 14패를 당하며 발목을 잡혔던 KIA는 올시즌 7승2무5패를 기록하며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일 군산에서 열렸던 SK와의 경기에서는 9회 2사에서 김원섭의 역전 끝내기 만루홈런으로 승리를 거두며 갈 길 바쁜 SK를 막아섰다.

SK는 3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4위 롯데와 사직 혈전을 치른 뒤 주말 1위 KIA를 만나게 된다. SK의 주말 움직임에 따라 4강 순위가 변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중간순위 (17일 현재)

순위	구단	승	패	무	승률	연속
1	KIA	61	39	4	0.587	1승
2	두산	58	43	2	0.563	1패
3	SK	58	44	5	0.542	1패
4	롯데	56	53	0	0.514	1승
5	삼성	53	53	0	0.500	1패
6	히어로즈	49	52	1	0.480	1승
7	LG	45	59	3	0.421	1패
8	한화	32	69	3	0.308	1승

광주일고 심동섭 호랑이 유니폼 입는다

프로야구 사상 첫 전면 드래프트

광주·전남 출신 8명 지명받아

2010년 KIA 유니폼을 입게 될 '아기 호랑이'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KIA는 1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10년 신인 지명회의에서 광주일고 좌완 심동섭(사진)을 1라운드에서 지명했다.

KIA는 또 임기준(투수·광주 진흥고), 이인행(내야수·덕수고), 임한용(외야수·건국대), 이제우(내야수·신일고), 김태훈(포수·영남대), 홍재호(내야수·고려대), 이정훈(투수·충암고), 최유진(외야수·서울고)을 지명했다.

올 시즌 처음 도입된 전면 드래프트에서 각 팀은 연고권 없이 일괄적으로 10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홀수 라운드는 전년도 성적 역순으로 진행돼 최하위팀이었던 LG가 가장 먼저 1라운드 1순위로 고려대 사이드암 투수 신정락을 선택했다.

지난해 6위를 기록한 KIA는 1라운드 3순위로 심동섭을 선발했다. 185cm, 83kg의 심동섭은 140㎞ 중반대의 빠른 공을 보유했으며 슬라이더와 커브를 구사한다. 짝수 라운드는 상위팀부터 선수를 지명해 KIA는 2라운드 14순위로 광주진흥고의 좌완 임기준을 골랐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4명이 1라운드 지명을 받았다. KIA 심동섭에 이어 광주진흥고 투수 김정훈이 히어로즈, 207㎝의 순천효천고 투수 장민익이 두산 그리고 진흥고를 졸업한 동의대 투수 문광은이 SK로부터 1라운드 지명을 받았다.

이외에도 청소년대표 유경국(투수·동성고)은 LG, 이태양(투수·순천효천고)은 한화, 강백산(외야수·광주일고)은 두산의 선택을 받았다. /김여울기자 wool@

광주일고 8강行

미추홀기야구 청원고 5-3 꺾어

광주일고가 16일 송도LNG보조야구장에서 열린 청원고와의 미추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16강전에서 5-3으로 역전승을 거두고 8강에 진출했다.

광주일고는 18일 오후 1시 같은 장소에서 충암고와 준결승 진출을 다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스포츠주개

18일(화)

▲대통령금배 고교축구 준결승 (14 : 50·MBCESPN)

▲프로야구 〈KIA : 히어로즈〉(18 : 20·MBCESPN), 〈삼성 : 한화〉(18 : 10·KBSN SPORTS), 〈SK : 롯데〉(18 : 15·SBS스포츠), 〈두산 : LG〉(18 : 20·Xpo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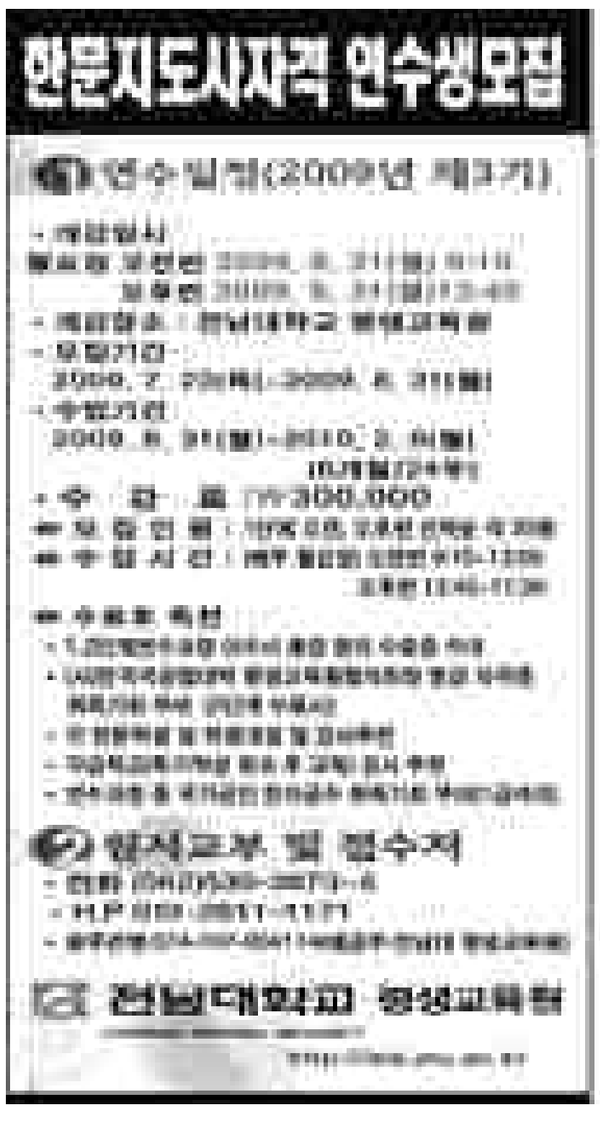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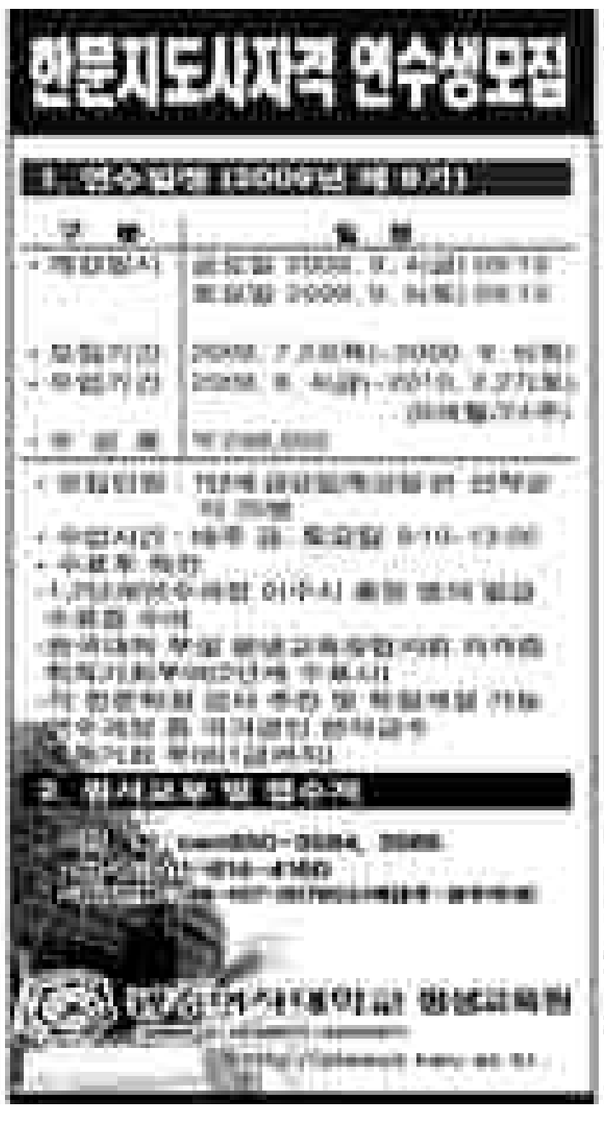
19일(수)

▲베를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00 : 45·Xports)

전남 드래곤즈, K-리그 19R 베스트팀 선정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2009 K-리그 19라운드 베스트팀에 선정됐다.

전남 드래곤즈는 지난 15일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강원 FC와의 경기에서 알렉산더, 슈바, 이규로, 김민호의 연속골에 힘입어 4-1로 승리했다.

전남은 4득점(×1)으로 홈(×0.5)에서 승리(×2)를 한데 이어, 슈팅 13회(×0.1)와 유효슈팅 9회(×0.1)로 점수를 보태 실점 없이 총 8.9점을 기록하며 FC 서울(5.4점)을 제치고 베스트팀에 뽑혔다.

전남은 지난 5월27일 강원 원정에 나섰던 리그 컵대회 피스컵코리아 5라운드에 이어 올 시즌 두 번째로 베스트팀에 이름을 올렸다. /김여울기자 wool@